



안녕하세요. 저는 OpenAI로 훈련된 대규모 언어 모델 ChatGPT입니다

ChatGPT에 ‘한국체육대학교 학우들에게 너를 소개해줘’라고 물었다. 위 제목은 그가 대답한 응답 중 첫 번째 문장이다. 2022년 11월 30일, ChatGPT의 베타 버전이 공개되면서 많은 화제를 낳았다.

대학교와 같은 고등 교육기관에서도 “논문을 ChatGPT로 작성했다.”, “과제를 ChatGPT가 대신해준다.”라는 말이 퍼지고 있다.

한국체육대학교 학우들도 자세한 정보는 몰라도 많은 관심을 표하고 있기에 이를 소개해보려 한다. 원지호 수습기자 jiho305406@naver.com

ChatGPT의 역사

ChatGPT는 미국의 프로그래머 샘 알트만이 CEO로 있는 ‘OpenAI’에서 개발된 딥러닝 기반 인공 지능 언어 모델(GPT)이다. GPT란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약자로 다음 단어를 예측하고 사람과 같은 텍스트를 생성하는, 언어에 중점을 둔 변환기 모델이다. OpenAI는 2019년과 2020년, 두 번에 걸쳐 마이크로소프트(이상 ‘MS’)에 총 20억 달러를 투자받았다. 투자에는 새로운 AI 기술을 개발하고 MS와 협력하는 계약이 포함되어있다. ChatGPT의 초기 베타 버전은 GPT-3.5를 이용했으나 3월 14일을 기준으로 GPT-4를 적용한 새로운 버전을 공개했다.

ChatGPT의 기능

ChatGPT는 많은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표적인 것들만 나열해왔다.

- (1) 대화 능력: 데이터와 언어 패턴을 통해 인간과 지능적인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
- (2) 자연어 처리: 광범위한 질문 범위에도 어려움 없이 적절한 답변을 제공한다.
- (3) 텍스트 생성: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ChatGPT는 과제나 논문과 같은 작문을 요구했을 때 고품질의 문장을 작성할 수 있다.
- (4) 요약: 많은 양의 글을 짧게 요약할 수 있다.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추출할 수 있다.
- (5) 개인화: 특정 사용자 사례에 맞는 응답을 제공하기 위해 해당 주제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ChatGPT의 특징

ChatGPT가 출시되기 이전에도 인간과 소통하는 많은 챗봇이 있었다. 애플의 시리, 삼성 빅스비나 구글 어시스턴트 같은 프로그램들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들도 인간과 많은 상호작용을 했고 당시에는 획기적인 시스템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었고, 사전에 설정된 답변만 하는 등 여러 한계가 드러났다. ChatGPT는 기존 프로그램들과 용도 자체가 다르다. GPT라는 변환기 모델을 통해 언어에 특화되어 있고, 발전된 자연어 처리 기능을 통해 사전 응답 기능이 아닌 적절한 답을 제공한다. 이어지는 추가 질문에도 무리 없이 응답해준다는 특징이 있다.

ChatGPT의 문제점: ‘오남용’

ChatGPT의 기본 모델은 AI를 활용한 언어 모델이다.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지만 인간의 입력 없이는 스스로 행동하지 않는다. 데이터는 대부분 인간에게 좋은 방향으로 쓰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례도 있다. 누군가 윤리적 지침을 위반하며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잘못된 행동이나 신념을 조장할 수 있고,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사회적 문제도 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과학 전문지(네이처)에서는 1월 12일 새로운 사례를 보도했다. ChatGPT가 작성한 의학 논문 초록(요약본)이 표절 검사기를 통과했다는 것이다. 이렇듯 오남용은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고 사용자가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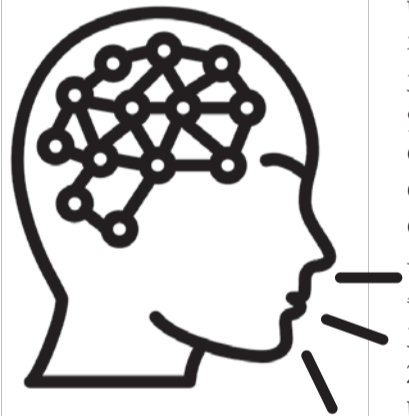
한국체육대학교 학우를 위한 ChatGPT

ChatGPT가 데이터를 빠르게 정리, 요약해준다는 특징은 한국체대 학우들에게 다양한 방면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단적인 예로 트레이너에 관심이 많은 학우는 근골격계 관련 자료를 찾는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직접 관련 서적을 구매하고 영어로 된 원문을 해석할 시간에 ChatGPT에 부탁하면 금방 해결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특정 연령대 사람들에게 알맞은 운동 방법을 제시하기도 한다. 노인에게는 밸런스 운동과 유연성 운동을 권장하고, 아이들은 놀이 형식의 운동으로 협응성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처럼 ChatGPT는 체육 전공자를 위한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ChatGPT에 과제를 부탁해보자!〉

한국체육대학교 학우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닐까 싶다. 대학교에 다니며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는 과제일 것이다. 항상 논문과 책을 찾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수집하며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 그러나 ChatGPT가 과제를 도와준다면, 혹은 논문이나 요약하는 글을 대신 작성해준다면 양질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지 알아보려 한다. ChatGPT에 ‘축구의 규정 중 하나인 오프사이드의 역사를 A4용지 기준 5줄로 요약해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과제물을 제출한다고 가정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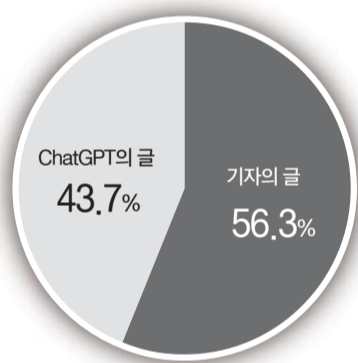
먼저 기자가 작성한 글과 ChatGPT가 작성한 글, 두 가지가 있다.



● ChatGPT

축구의 오프사이드 규칙은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변화를 겪었습니다. 1925년에 공격자가 두 명의 수비 선수 사이에서 골라인과 가까이 있어야 하도록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1990년에는 공격하는 플레이어가 마지막 두 번째 수비수와 같은 위치에 있는 경우 오프사이드가 될 수 있도록 규칙이 추가로 수정되었습니다. 또 2005년에는 골을 넣을 수 있는 신체 부위가 마지막 수비수와 같은 위치에 있으면 공격수가 오프사이드가 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1년에는 골을 넣을 수 있는 신체 일부가 마지막 수비수와 같거나 뒤에 있는 경우 공격자가 오프사이드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2개의 글 중 ChatGPT가 작성한 것은 무엇일까?



● 기자

축구의 오프사이드 규칙이 맨 처음 기록된 1800년대 중반에는 볼을 받는 선수가 골키퍼를 제외한 상대편 수비수보다 골라인에 더 가까이 있는 경우에 오프사이드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해당 선수의 공격 가담 여부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다양한 예외 조항과 기준들이 추가, 변경되었으며 가장 최근인 2022년에는 머리, 몸 또는 발의 모든 부분이 상대방 진영에 있고 볼과 마지막 두 번째 상대 선수보다 상대 골라인에 더 가까운 경우 오프사이드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지난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학보사 인스타그램에서는 ‘두 개의 글 중 ChatGPT가 작성한 것은 무엇일까?’라는 투표를 진행했다. 87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결과는 49:38, 약 56.3%의 사람들이 정답을 맞혔고, 나머지 38명은 인간의 글을 보고 ‘ChatGPT가 적었다’라고 응답했다. 물론 프로그램이 작성한 글에서는 특유의 어감이 느껴졌고 글을 직접 쓰고 문장을 부드럽게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10명 중 4명은 인간의 글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번역 과정에서 쉼표 문법적 오류들로 인해 약간의 수정은 필요했다. 그러나 의도에 부합하는 적절한 답변과 더불어 ‘5줄’이라는 조건까지 스스로 해낸 걸 알 수 있다. 무료 버전을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은 것도 의미 있는 부분이었다.

교수와 학생의 의견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는 “000 교수님이 ChatGPT 언급을 많이 하신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 이에 관련 내용을 말했던 교수와 학생과 이야기를 나눠봤다.

Q: 학생들이 학교에서 ChatGPT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저희가 학생들의 ChatGPT 사용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막을 이 유도 없고요. 오히려 자료조사와 같은 측면에서 시간을 단축해 준다면 다른 부분에 많은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어 좋을 것입니다. 대신 교수가 ChatGPT의 대답으로만 제출할 수 있는 과제를 부여하면 안 되겠죠. ChatGPT 자체는 인간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올려주는 좋은 프로그램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양교직과정부
오유진 교수

A: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는 자료로는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ChatGPT를 맹신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ChatGPT에 명확한 질문을 하면 정말 좋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의 내용이 의문문일 경우에는 부정확한 정보까지도 인용하면서 신뢰할 수 없는 자료가 작성됩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현재는 그 자료를 인간이 재검증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1~2년만 지나면 정말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거예요.

체육과학연구소
정성현 교수

A: ChatGPT를 ‘인공 지능과 대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페이지’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시리, 빅스비와는 다르게 다양한 형태의 답변이 모두 가능한 게 특징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학습 정도를 평가하는 시험이나 과제에서는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습의 도움을 얻는 용도는 좋으나 모두가 ChatGPT를 사용하게 된다면 상대평가의 의미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현재의 평가 방식에서 바로 도입하는 것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체육복지 18
이경진 학우

A: 대부분 사람은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고 저도 그랬습니다. 검색을 통해 자료를 찾으면 무엇이든 알려주니까요. 그러나 저희는 인간이잖아요. 이런 기능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AI가 알려주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본인의 생각과 비교할 수 있는, 즉 비판적 사고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올바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된다면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수체육교육 22
서예린 학우

기자생각

ChatGPT는 혁신 기술이다 ‘그러나’

기술은 인간에게 시간을 제공해줬고, 이를 통해 인간은 스스로 발전을 거듭해왔다. ChatGPT도 마찬가지이다.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물리적인 시간을 줄여줄 것이고, 많은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ChatGPT에 우려하는 건 무엇일까? 프로그램에는 윤리적인 측면에서 벗어나는 질문을 걸러내는 시스템이 적용돼있다. 그러나 이 또한 인간의 작품일 뿐이다. 사용자가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다면 언제나 허점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ChatGPT는 강한 AI가 아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해낼 수는 없는, 인간이 만들어 낸 도메인 속에서 응답만 해주는 프로그램일 뿐이다. 그렇기에 이곳에서 나오는 결과들은 모두 사용자에게 책임이 부과된다는 걸 인식해야 한다. 우리 학교 구성원들도 이를 인지하고 많은 도움을 얻기를 바란다.